

목어

업의 세상

오늘날 기존의 가치관만 갖고는 도저히 감당 못할 상황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정보화 시대 속에 우리가 겪는 갈등은 고루한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면서 비롯된다. 마치 가라앉고 있는 배의 갑판 위에서 서로 안락의자를 뺏으려고 날뛰는 것과도 같은 여러 현상이다.

* 제주도는 해방 이후 최대의 양민학살의 비극을 경험한 지역이며,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세월의 흐름 속에 망각되기만을 기다리는 중인데, 최근 한 거물 정객은 제주도를 '폭동의 지역'으로 지목하는 발언으로 상처입은 사람의 마음에 되려 소금을 뿌린 일이 있었다. 어느 특정 지역을 지목하여 '반란'의 명소처럼 여기는 배경에는 자기 지역만이 건전하고 우수하다는 '팔을 안으로 굽히는' 고루한 마음주의적 사고가 숨어 있다.

1923년 동맹에서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한국인은 무조건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숨, 삼 등으로 학살당했으며, 그 희생자는 7000명에 달했다. 한국인이란 누구나 출신지역에 관계없이 학살의 대상이 된 것이다. 제주학살과 동맹학살은 한결같이 병적인 우월감으로 타지역 사람을 무시하는 데서 시작됐다. 한반도가 두 조각으로 분단되어 반세기 이상 대립해 온 것도 서로에게 부당하게 희생당한 지역을 지목하여 어디는 섬, 어디는 폭동이 일어난 곳이라는 식으로 차별을 일삼는 것은 조선 시대의 차별의식과 전혀 다르다.

한국인은 모두가 떠나 할 것 없이 같은 배를 타고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 내에는 어느 지역이든지 제주 지역민과 친인척 등으로 깊은 관련을 갖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선거 때 그처럼 한 표를 애절한 위인이 병적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는 꼴이 역겹다. 정보화 시대는 지금 일어난 일이 금방 뒤먹임 되어 사회 전반에 반영되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이른바 나비효과가 수시로 발생한다.

불교는 한 순간의 내 인행이 곧 중생에게 반영되어 나에게 되돌아오는 '업'의 무서움을 경고하고 있다. 행위에는 반드시 선악이 따르며, 그것은 인과의 도리에 의해서 과보를 받는다. 석가모니는 인간의 가치는 행위(業)에 달려 있다고 했다.

김홍운(한양대 명예교수·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논설고문: 고은
 인쇄인: 김규석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mahamail.co.kr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8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원불교의 종단협의회 가입 논의가 1년여만에 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원불교 종단협 가입 논의 재연 정대 스님 "받아들일 의향있다"

4일 열린 종단협의회 임시사회. 이날 안건에 없었던 원불교의 종단협의회 가입 문제를 회장 정대스님이 꺼냈다. 최근 종단협의회에 가입한 대각종 총무원장의 인사를 들은 직후였다. "작은 종단도 가입하는데, 원불교만 종단협의회에서 빠져 있다. 종단협의회를 만든 취지는 화합해서 불교를 흥토포하는 데 있다."

사무총장 홍파스님이 얘기를 이어갔다. "원불교에서도 목탁을 치고 반야심경을 독송한다. 그쪽에 정식으로 요청하면 가입할 의사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각종 성호 총리원장은 신중론을 폈다. "7대 종단으로 불리

는데, 종단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불교 개신교 등과 같이 하나의 종교로 대접을 받는데, 굳이 불교의 한 종파로 들어오겠느냐는 것이었다.

정대스님이 정리를 내었다. "사무국장(법현스님)이 그쪽(원불교)을 만나 이사회에서 원불교의 종단협의회 가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알고, 가입할 뜻이 있다면 이쪽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전해라."

원불교의 종단협의회 가입 논의는 지난 해 6월 당시 종단협

의회 회장 고산스님이 "종교지도자들이 먼저 화합해야 한다"며 이광정 종법사(불교의 종정에 해당)에게 종단협의회 가입을 제안하면서 활발하게 진행됐다. 당시 원불교측도 "부처님 제자들끼리 힘을 합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종단협의회와 원불교 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원불교의 종단협의회 가입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논란이 계속되자 원불교는 최고의결기구인 임시수위단 회의를 열어

"원불교는 새 주세불인 소태산 대종사에 의해 개교한 새불교임을 거듭 확인한다"고 결의, 논란의 확산을 막았다.

이번에도 논의의 단계를 넘어 가입에 이를 것인지는 미지수다. 불교계에서는 대체로 "원불교의 교조를 소태산 박종빈에서 석가모니불로 하고, 소태산을 중창조나 종조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원불교측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원불교 홈페이지(wonbuddhism.or.kr)에 따르면, 원불교의 교조는 소태산 대종사, 신앙의 대상은 법신 불 일신상이며, 소의경전은 <원불교교전>이다. 정성은 기자 (swjung@buddhapia.com)

새싹불자 포교 초석 놓았다

'어린이 법요집' 발간 의미

대한불교 어린이지도자 연합회의 <어린이 법요집> 발간은 각 사람마다 다르게 진행되는 어린이 법회 식순을 통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4일 출판 기념행사를 갖는 <어린이 법요집>은 어린이 포교를 통한 불교도 구원을 목표로 한 길을 걸어 온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맹(회장 덕진)의 숙원 사업을 이룬 것 뿐 아니라 포교의 해묵은 과제를 청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포교에 어린이 포교에 있어 이렇다 할 어린이용 법요집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어린이 법요집>발간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용 통일 법요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차에 만들어진 최초의 법요집이라는 점에서 어린이 지도교사나 어린이 포교 관련자들에게 더욱 환영받고 있다.

특히 이번 <어린이 법요집>은 조계종포교원의 감수를 거쳐 조계종 종단에서 마련된 제대로 된 통일 법요집으로 보급될 예정이어서 더욱 뜻 깊다. 실제로 통일 법요집이 나오기까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맹회는 통일안 마련에 오랜 시간을 들여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진통은 오히려 통일 법요집이 갖는 의미를 반증하는 것일 뿐 일말의 지겨워야 하는 일이며, 하나의 통일안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처럼 법회의 기본이 되는 어린이용 어린이용 법요집의 통일 은 어린이 포교분야에서 법회의식이나 법회내용의 큰 틀을 잡아주는 중요한 작업에 해당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각 사찰마다 혹은 법회 때마다 일관된 법회식순이나 내용을 갖지 못해서 빛게 되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어린이 법회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교사마저 간파하기 쉬운 불교 일반에 관한 기초 지식들을 망라하고 있어 통일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어린이 법요집>은 그 한계와 아쉬움 또한 명백하다. 이번의 <어린이 법요집>은 조계종단에서 한정된 것일 뿐 전 종단을 아우르는 못했고 재정적 뒷받침이나 전문적인 자문기구의 부재로 법요집 자체의 완성도 면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질대적인 재정 부족으로 인한 삽화나 사진 등의 흑백처리는 칼라에 익숙해진 비주얼 시대 어린이들의 기호에 턱없이 못 미치게 된 점도 지적사항이다. <어린이 법요집> 출판에 직접 참여한 관계자는 기호에 부응하거나 기초교리 부분 등은 스님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에서 보다 진지하게 검증하여 통일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종교를 가진 청소년의 83.7%가 초등학교 때 종교를 선택한다는 조계종 포교원의 설문조사 결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어린이포교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어린이 법요집> 발간이 종단과 사찰에 구매없이 없이 강조되어야 할 어린이 포교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교종단협의회나 불도의 범 종단기구를 만들어 불교 전체에서 어린이 포교를 함께 열려하고 고민하며 법요집, 찬불가의 통일본 아니라 어린이 포교 전반에 걸친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화수분인데...포교 무관심

기획연재

관람료 사찰과 포교

- ①포교는 없고 관람만 있다
- ②포교 '안하나' '못하나'
- ③투자없이 미래없다

9월 23일 학생 30여명을 데리고 강화 보문사로 현장체험학습을 나온 김명순(40·양강중교사)씨는 사찰 초입에서 다 쓰러져 가는 안내판을 보고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안내판의 글자가 너무 적어 가까운 거리에서도 읽기가 힘들었고, 쓰여진 단어조차 전문용어로 학생들에게 사찰을 제대로 소개시켜 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관람료 사찰들이 관광객들에 대한 포교 대책을 세우지 않아 사찰이 수행과 포교의 공간이 아니라 단순한 나들이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 사찰을 찾는 관광객은 지난해 150만명이 늘어난 등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사찰관람은 박물관에서 유물을 보듯이 사찰을 한번 둘러보고 문화재 앞에서 사진을 찍고 오는 것이 고작이다.

이 같은 모습은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으면서도 문화재를 소개하는 안내소나 안내인이 없고 또한 리플릿이나 소책자 같은 홍보물도 없는 등 사찰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관람료 사찰 중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문화재를 소개하거나 시민선방, 다도, 단기출가 같은 상시 포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포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엄청난 포교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에 대한 포교를 포기하고 있는 사찰에 대한 불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불교 내부에서조차 관람료 사찰의 입장료를 없애야 불교가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대조사들이나 불교 신도들이 이뤄놓은 업적에 의지하여 언제까지 살아갈 수 있느냐는 자성의 목소리다.

관람료 사찰을 찾는 불자들은 도대체 이곳에 거주하는 스님들이 무엇하고 사는데 대한 의문이 크다. 스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

히 사찰을 찾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알릴 수 있음에도 포교에 등한시 하는가에 대한 불만이다. 이에 대해 관람료 사찰의 한 스님은 "포교가 종교의 생명이라는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관람료 사찰의 전각이나 문화재가 현대 건축물과 달리 손이 많이 가고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 상대적으로 포교에만 전력할 수 없다"고 포교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 교구본사의 사무장은 "일반 사찰은 신도들의 시주금으로 사찰이 운영되어 신도관리 내지는 포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관람료 사찰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수입이 생겨

사찰행사비=포교예산 대형불사로 사격 과시

포교에 대한 절박함이 덜하다"며 "관람료 사찰이 포교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전국 73곳의 관람료 사찰중 20개 사찰을 제외한 53개 사찰은 포교예산이나 포교소임자가 없다. 포교소임자가 있는 사찰도 포교관련 예산이 전체예산의 10%도 안되고 이마저 사찰행사 예산을 포교비로 분류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일부 주지스님들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이루어 놓아야 한다는 과시욕(?) 때문에 포교보다는 대형 불사에 치중하고 있는 현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아셈회의, 2001년 한국 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사찰의 진면목을 보여준다는 것은 허상으로 비춰진다.

해인사, 송광사 등 한국의 이름난 사찰은 거



◇강화 보문사 마애석불 좌상 앞에서 관람객들이 안내판을 읽고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석불만 쳐다보고 있다.

의 다 가보았다는 미국인 불리 베크하드(37·서울 이태원 거주)씨는 "서점에서 구입한 책자에 의존해 관광을 하다보니 문화재에 대한 이해가 적고, 궁금한 점이 생겨도 물어볼 곳도, 사람도 없어 답답할 때가 많다"며 사찰 관광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계종 포교원 황찬익 포교과장은 "그동안 사찰이나 종단에서 사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교를 접할 계기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찰이 문화적 종교적 공간임을 인식시켜 줄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리고 느낄 수 있도록 관람료 사찰도 기존의 답답한 태도를 벗고 포교에 대한 의무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우·도필선·김두식 기자 (wwkim@buddhapia.com)



불교 생활화의 길잡이 - 현대불교

● 국내지원 ●

●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

大韓佛敎 曹溪宗 한마음선원(禪院)

원장 대행 주지 혜원

사부대중 일동

- ▶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 ▶ 전화 : 사무처 (031)470-3100 팩스 (031)470-3116

- 한마음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4리 산5-2 Tel: 043-877-5000/0462 Fax: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하동 1500번지 Tel: 064-721-4662 Fax: 064)721-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상동 522-1 Tel: 051-403-7077 Fax: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062-373-8801-3 Fax: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13블럭 9-2노트 Tel: 052-284-0884 Fax: 052)244-0182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번지 Tel: 053-767-3100 Fax: 053)765-1600
- 충북경남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9-1 Tel: 055-342-6630/6639 Fax: 055)346-2179
- 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055-746-8163, 744-1321 Fax: 055)746-7825
- 대전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매동 344-21 Tel: 042-532-1481 Fax: 042)526-0891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상동동 18-99 Tel: 054-275-3163 Fax: 054)274-350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53-1 Tel: 043-259-5599 Fax: 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승정동 989 Tel: 033-651-3003 Fax: 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03-3 Tel: 055-643-0643 Fax: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061-284-1771 Fax: 061)284-1770

- U.S.A (미국 지원)
 - New York (뉴욕플러싱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 11354 Tel: 718-460-2019 / Fax: 718-939-3974
 - Washington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l Rd. Annandale VA. 22003 Tel: 703-560-5166 (Fax결음)
 - Los Angeles (LA 지원) 210N Catalina St. L.A.CA. 90004 Tel: 213-382-1711 / Fax: 213-386-8852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Lincoln Ave.Skokie IL. 60077 Tel: 847-674-0811 / Fax: 847-674-2280
- CANADA (캐나다 지원) 20 Mobile Dr. 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 416-750-7943 / Fax: 416-750-3091
-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P406 Rep. Argentina Tel / Fax: 5411-4921-9286
 - Tucuman (투쿠만 지원) Av. Aconquiza 5250, El Corte, Yerba Buena, CP4107, Tucuman, Argentina Tel / Fax: 54381-425-1400
-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str. 102, 41564 Kaarst. Rep. of Germany Tel: 49-2131-969551 / Fax: 49-2131-969552
- Thailand (태국 지원) 43 soi pattanavet Sukhumvit 71 Bangkok, Thailand Tel: 662-711-2005 / Fax: 662-391-6425